

모양 있는 것은 모두가 헛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괴로움뿐입니다. '참나' [眞我]는 별하지 않습니다. '참나'를 찾기 위한 정진은 험 없는 여정이 돼야 합니다. -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신수 흰하려면 마음부터 밝혀야 “자신을·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누구나 한번쯤 알고 싶은 것이 바로 한해 운수다.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마음 때문이다. “집안에 악재가 자꾸 겹쳐서 가족들이 걱정돼 왔어요. 안 좋은 것은 피해 가야죠.”

지난 수요일 안양역 근처에 있는 H철학관에서 사주를 본 이모 씨(54·서울 대치동)는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해, 특히 역학에서 새해로 삼는 임춘 무렵이 되면 자신의 앞날을 예측해 보려는 사람들로 점집이나 철학관의 문턱이 붐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트렌드 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최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약 80%가 점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종교별 이용자 가운데 불자들의 점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실제로 불교계 광고시장에서 사주 광고를 찾기도 어렵지 않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 이유는 불교와 사주가 동양철학을 배경으로 사상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명리학자는 “현생의 사주는 전생의 업에 의해 만들어진 선전

운(運)이다.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현생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현생에 좋은 업을 쌓지 않으면 내생에는 좋은 일이 생길 리 없다”고 말했다.

선업을 쌓아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다. 사주는 인과법칙에 대한 일종의 경험적 통계다. 사주는 불교와 마음가짐, 마음씀씀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은 “관상·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心相)이다”라고 말했다. 마음에 따라 삶이 변한다.

사주풀이에 대해 불교는 어떻게 말할까.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自燈明法燈明)”고 했다. 이외에도 불교는 팔만대장경 곳곳에서 법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불성에 의지해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것을 강조한다.

〈금강경〉에서는 “만약 모양으로 여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찾았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게 되므로 능히 여래를 볼 수 없다(若以色見我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고 했다. 정해진 사주 혹은 운명이라는 틀은 〈금강

경〉이 경계한 ‘모양’이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불자들이 사주를 보는 등 점점을 찾는 것은 현실이 만만치 않고 의지처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주[운명]도 결국 마음씀씀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불자의 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한편, 부처님은 타인의 길흉복을 보는 것을 금기로 여겼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방편이라든 사주·점을 봐준다. 특히 임춘이면 액운을 떨치는 부적을 다량으로 배포한다.

열린선원장 범현 스님은 “사람들은 불행을 떨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에 종교를 믿는다. 사찰에서 나눠주는 부적은 자신들이 신앙하고 믿는 곳에서 나눠주는 행운의 상징, 기쁨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주와 점은 인간의 가능성을 한정 짓는다. 미래에 대한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을 점괘의 틀에 가두는 병폐도 있다.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육도윤회에서 해탈·열반했듯이, 마음공부를 통해 업의 굴레를 넘어서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길이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빨리 쌍성 달리고 싶은데...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는 조계종 포교원, 화계사, 삼선포교원, 이대청소년놀이연구회와 함께 1월 22일 인제군 만해마을과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제1회 전국사찰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사찰학생회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회에는 150여 청소년이 참가해 2박 3일 동안 일정을 보냈다. 사진은 행사 이틀째인 23일 청소년들이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스키를 타기에 앞서 기본 강박재원 기자

“자정과 쇄신으로 불교 미래 열겠다”

자승 스님, 신년 기자회견서
5대 결사 추진 담화문 발표

“역사 앞에 반성하며 5대 결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들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 불교가 처한 현실과 한계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자정과 쇄신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받는 국민 종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승 스님은 이를 위해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의 5대 결사를 제안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승 스님은 “범중단적인 자정과 쇄신 결사를 제안합니다” 제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스님은 담화문에서 “지금의 한국 불교는 오직 전통과 역사, 관습에만 매몰돼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해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생존 자체가 절박하다”며 모든 불교계가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불교는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서 사회 전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국민들을 보듬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됐다. 그 원인을 자승 스님은 우리 사회의 혼란스러운 근현대사의 투영으로 파악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 불교 훼손과 미군정하에서의 종교 환경 변화, 군사정권에서의 자주성 훼손 등이 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조계종은 민족문화에 대한 왜곡된 의식, 편향된 종교적 이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일방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스님은 한국 불교의 위기 상황을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의 문제에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자승 스님은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불교계 내부의 변화와 의식 전환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결사의 정신으로 현재

의 민족문화수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자정과 쇄신 결사’를 제안했다. 결사는 한국 불교의 자존을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 종교로 거듭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담화문 발표에서 자승 스님은 ‘자립과 자존의 길’을 강조했다. 스님은 “정부지원 없이 불교계의 힘으로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권력의 의존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정과 쇄신 결사’를 위해 조계종은 각 교구별, 지역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결성을 추진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불교계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박기범 기자 smie2@daum.net

821호 CONTENTS 설 특집

- ▶5 토끼이야기
- ▶7 사대부중의 신년계획 들여보기
- ▶8 화목한 명절 보내기
- ▶9 설날 가볼만한 공연 전시

법정 스님 재고도서 처리방안 고심

추모 분위기에 출판 과열...

‘맑고향기롭게’ 방안 논의 중

법정 스님 저서의 판매시장이 종료됨에 따라 스님의 유지를 따르는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와 출판사가 재고도서의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10년 3월 일찍이 법정 스님은 본인의 모든 저서를 절판해 달라는 유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출판계약이 남아 있는 각 출판사와 스님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맑고향기롭게’는 협의를 통해 2010년 12월까지 재고를 판매하고 모든 저서를 절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책이 절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스님의 책이 10권 이상이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오르는 기록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출판사들은 경쟁적으로 스님의 책을 출판했지만 판매량은 줄기 시작했다.

결국 판매 시한이 지나자 각 출판사들은 재고 도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판계는 각 출판사의 재고량을 합산하면 50만부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추모 분위기에 편승한 과도한 출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무소유 등 일부 저서를 제외하고는 스님 생전에도 판매량이 많지 않았

다.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자 출판사들이 대량으로 발간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반쯤 사태를 우려해 스님 유지를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저서가 폐기처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맑고향기롭게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확한 반품 규모 파악 후 합리적 방안을 결정한다.

김자경 맑고향기롭게 사무국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우리도 스님의 뜻과 책을 살리고 싶다. 내부 입장을 정리해 출판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범·노덕현 기자

사령

승진 표경희 명 경영관리국 영업부 과장
이정석 명 경영관리국 관리부 대리
황향숙 명 경영관리국 영업부 대리
2011년 1월 1일 부

신상품 LED인등·전구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농인양당

농인양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장물·침향염주·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bwa.com

“명품”의 황금위패, 흑옥위패로 영단의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

황금영구위패는?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치전경 >

※ 디자인특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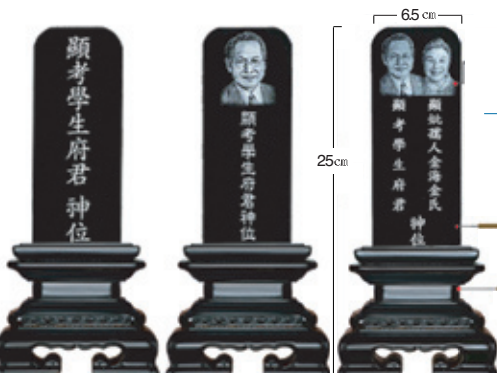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흑옥 제사용 위패는?

※ 디자인특허 ※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당사가 개발한 “표면타공기법”은 흑옥 판을 다이나몬드 칩으로 각인하는 초미립 가공기술로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며, 훼손, 퇴색된 사진도 완벽하게 복원하여 제작합니다.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함께 드립니다.

[주]대양아트 상담전화: 02)966-9650 FAX: 02)921-9650
본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dyart@daum.net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